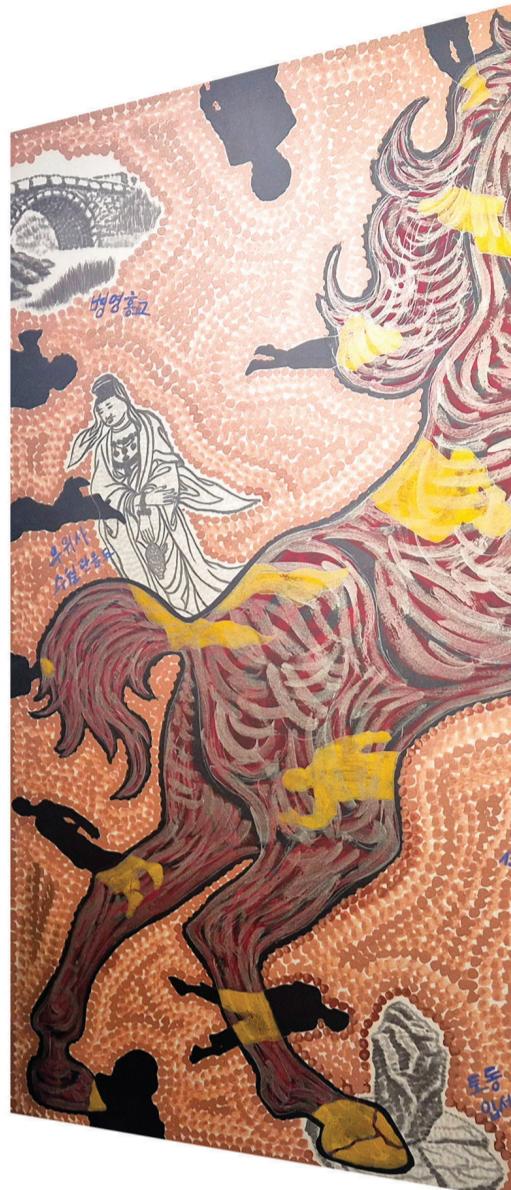


시와 그림은 ‘압축된 감각의 언어’…조우하는 순간 짜릿

2026

꿈을 쏘다 <3> 은암미술관 학예실장
시인 한경숙

시인 감각 지닌 큐레이터로 활동
은암미술관 ‘붉은 말…’ 전 기획
시 전문지 ‘청춘’ 창간 3년 여 발간
…시 창작의 실제” 박사 논문 주목



▲한경숙 시인은 올해 은암미술관 학예실장을 맡아 새로운 큐레이터 일을 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붉은 말, 시작의 불’ 기획전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한 실장.

▶10여년 전 한 시인이 창간한 시 문화매거진 ‘청춘’, 시집 ‘나는 다른 행성에 있다’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도 타자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해오던 차였습니다. 미술관은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공간이었죠. 작품 하나하나가 하나의 시처럼 말을 걸어오고, 그 사이의 관계와 맥락을 엮어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일이 큐레이팅이라는 점에서 시 창작과 닮아 있었어요.”

한경숙은 시를 쓰는 시인이다. 시 창작은 기쁨과 아픈 이면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세계를 감각하는 방식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로 자신의 마음이 어떤 감정으로 어디를 향해 헤어가는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한 시인은 최근 큐레이터로 변신해 미술관에서 새로운 영역의 일을 하고 있다. 은암미술관 학예실장을 맡아 갤러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 한마디로 시인의 감각을 지닌 큐레이터로, 큐레이터의 시선을 가진 시인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시와 그림은 모두 ‘압축된 감각의 언어’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면서도 “시는 시간 속에서 읽히고, 그림은 공간 안에서 한눈에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여백 속에서 독자의 호흡을 기다린다면, 그림은 침묵 속에서 즉각적인 감각을 건넨다”며 “이 차이가 오히려 두 장르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큐레이팅은 이 둘을 조율하는 또 하나의 언어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시인은 최근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에서 개최한 신년 기획전 ‘붉은 말, 시작의 불’(지난 12월 31일~1월 22일)을 기획했다. 새해의 첫 장을



‘말’을 주제로 내건 것은 창조적 변화와 중단 없는 도전을 미술관이 한발 앞서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는 “붉은 말, 시작의 불’은 변화의 문턱에 선 동시대의 감각에 대한 응답”이라며 “멈춤과 가속, 재생과 소멸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 예술은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비유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큐레이팅의 매력은 혁신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글을 쓰는 것은 순간의 상상력이 발현되는 것이지만, 전시장은 작품과 관객, 갤러리라는 환경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머릿 속에 상정하는 모습과는 다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작품이 전시장에 놓이는 순간, 전혀 다른 표정을 드러낼 때가 많죠. 큐레이팅의 매력은 바로 그 ‘사이’를 읽는데 있다고 봐요. 작가와 작품, 공간과 관객 사이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지점을 포착하는 일, 그 순간을 설계하고 목격하는 것이 큐레이터로서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시를 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틈틈이 그는 문학 관련 연구를 지속했다. 이번에 광주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학위가 통과됐다. ‘팬데믹 이후 생태적 상상력과 시 창작의 실제’를 주제로 한 논문은 재난과 단절의 시대를 통과하며 시가 어떻게 생태적 감수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주목했다. 또한 그것이 어떻게 실제 창작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탐색한 연구다.

한 실장은 “이론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제 시 작품들을 중심으로 창작의 내용을 해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인이자 연구자로서 제가 지나온 시간의 기록이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논문은 팬데믹 이후 사회에서 생태적 상상력이 왜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시 쓰기의 미학적 특징과 기준 서정시와의 차이, 그리고 한 시인의 작품 ‘반려해변’을 포함한 60 여 편의 시를 중심으로 한 창작 실제 분석을 담고 있다. “시가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을 자연에 투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말 걸고 응답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답에서 그가 추구하고 천착하는 창작과 시 세계의 방향이 가늠되었다.

유한 성품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은 한 시인은 겉으로는 조용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지가 꿈틀거리고 있다. 10여년 전에는 시 전문지 ‘청춘’을 창간해 3년여 발간하기도 했다. “영업적인 마인드라고는 전혀 없는 시인의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말은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원고료만큼은 반드시 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획과 편집은 물론 재정과 유통까지 직접 책임져야 했다”며 그는 멋쩍게 웃었다.

사실 잡지 발간과 창작은 차원이 다른 도전이다. 물론 힘든 일만 있던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문학은 혼자 쓰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문학예술과 연결되며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체감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문학과 문학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몸으로 배운 소중한 경험이죠.”

앞으로 한 시인은 시와 타 장르의 문예 창작을 중심에 두되, 큐레이팅 연구를 보다 유기적으로 엮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학과 미술, 교육이 결합된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창작이 공공의 장으로 확장되는 가능성도 연구할 계획”이라며 “개인의 서사가 사회적 감각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꾸준히 탐구하는 일도 계획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재즈로 채우는 ‘유키 후타미 트리오 콘서트’

2월 15일 아트스페이스 흥학관

밸런타인데이에 재즈만큼 잘 어울리는 음악이 있을까. 낭만적인 이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재즈 무대가 펼쳐진다.

‘유키 후타미 트리오 콘서트’가 오는 2월 15일 오후 5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에서 열린다. 유키 후타미 트리오 주최, 재즈브릿지컴퍼니 주관.

유키 후타미는 2017년 첫 내한 이후 거의 매년 한국 투어를 이어오며 국내 재즈 팬들과 꾸준히 만나왔다. 2012년 오스카 피터슨에게 현정한 음반 ‘Banzai Oscar’를 통해 이름을 알렸고, 이후 뉴욕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와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수학하며 본격적인 연주 활동을 시작했다. 매년 50여개 도시에서 70회 이상의 공연을 이어가는 등 활발한 투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의 주제는 ‘The Great American Songbook’. 드크 엘링턴, 조지 거수원, 해럴드 알렌, 제롬 컨, 리처드 로저스, 콜 포터 등 20세기 미국 대중음악과 재즈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프로그램에 오른다. 오스카 피터슨의 명곡들도 함께 연주되며 재즈스탠더드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구성이다.

베이스에 박진교, 드럼에 이성구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피아노, 베이스, 드럼의 단출한 편성은 곡의 선율과 리듬, 즉흥 연주의 밀도를 더욱 선명하게 한다.



유키 후타미. <아트스페이스 흥학관 제공>

게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빠른 스윙 넘버부터 서정적인 밸러드까지 폭넓은 곡들이 이어지며, 밸러트인데이 시즌과 어울리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된다.

공연 관계자는 “재즈스탠더드는 물론 발레인데이에 어울리는 밸러드 곡들도 준비됐다”며 “스트레이트 어헤드로 평가받는, 정통 피아노 재즈 트리오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석 4만5000원(학생 3만5000원), 놀티켓·네이버예약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제49회 이상문학상에 위수정 ‘눈과 돌멩이’

제49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소설가 위수정(49·사진)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눈과 돌멩이’다.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는 다산북스는 27일 서울 중구 대화방에서 간담회를 열어 수상작과 선정 배경을 발표했다. ‘눈과 돌멩이’는 이십 년 가까이 느슨하면서도 각별한 우정을 나눈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룬다.

심사위원인 김형중 문학평론가는 수상작을 “결코 인물과 줄거리로 훈련될 수 없는 훌륭한 단편”이라고 평가했다.

위수정 작가는 “독자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써왔고 그것이 작가의 의무이자 예의



라고 생각하지만, 이 소설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썼다”며 “그래서 이 작품으로 이상문학상을 받게 되어 더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문학상 우수작으로는 김혜진 ‘관종들’, 성혜령 ‘대부호’, 이민진 ‘겨울의 윤리’, 정이현 ‘실폐담 크루’, 함윤이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가 뽑혔다. 상금은 대상 5000만원, 우수상 각 500만원이다. /연합뉴스

매달 한 작품 ‘온라인 엽서’로 만나다…수하갤러리 기획전

1월 작가는 설조환 ‘무등산 설경’

매달 한 명의 작가와 작품을 ‘온라인 엽서’로 만난다. 수하갤러리(관장 장하경)는 매월 한 명의 화가와 그의 대표작을 선정해 온라인 엽서로 소개하는 기획전을 진행한다.

미술관은 26일 지금까지 수하갤러리를 방문했던 관람객들에게 매달 1명의 대표작을 선정, 온라인 엽서를 발송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 지난해 아트광주25 당시 수하갤러리를 방문했던 청소년들에게는 실물 엽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갤러리가 선정한 1월 작가는 설조환, 대표작품은 ‘무등산 설경’. 이맘때 볼 수 있는 무등산 설경은 지역민들나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는 남다른 감성과 이미지를 선사한다. 일반적으로 광주를 상징하는 장소성을 내재하는 무등산은 남도의 정신과 의리를 품고 있다.

한편으로 겨울의 무등산은 자연 그대로의 심미적 미감과 매혹을 발현한다. 설 작가의 작품은 인상적인 자연의 풍광이 두드러지는데 작가가 빛과 색의 조화를 통해 인상주의적인 화풍을 구사하기 때문이



설조환 작 ‘무등산 설경’

다. ‘무등산 설경’은 무등산의 겨울 풍경을 모노톤의 단색조로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장하경 관장은 “온라인 엽서 기획전은 매달 새로운 작품을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실물 우편 발송은 청소년들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미술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며 “예술의 도시 광주의 토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설 작가는 탑회, 신형회, 오색작가회, 광미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21세기 오블리크 기획초대전을 비롯해 오색작가회 정기전, 양림미술관 기획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한편 수하갤러리는 2월은 임근재 작가의 ‘동백’이 담긴 엽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도 올해 12명의 작가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 ‘빛 2025’ 작가와의 대화 오늘 하정웅미술관



서사와 미학적 지점을 공유한다. 장미 작가는 임종은 미술 비평가와 동시대 전시 맥락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의미를 살펴보고, 최지목 작가는 조판용 미술 비평가와 인간의 시각 경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참여는 구글 품과 전화 접수 통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